

심포지움, 공개토론회 및 벤처포럼



▲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



▲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



▲ 벤처문화 심포지움, 이어령 이화



▲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개토론회

‘벤처코리아 2002’ 주요 행사로 ‘대선후보 초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(이상희 의원 대리 참석)와 한편, 심포지움에 앞서 산업개발연구원 백영훈 있었다. 이어 ‘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개토론 모색하는 전략포럼과 이화여대 이어령 석좌교수가



▲ 산업개발연구원 백영훈 원장



▲ 다사르그룹 알렉스 뷔 회장



▲ 연세대학교 석좌교수가 열강하고 있다



▲ 이어령 교수의 강의를 끝내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

‘2002년 벤처정책 심포지움’이 열렸다. 이 자리에는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참여했다. 원장과 다사르그룹 알렉스 뷔 회장의 기조연설이 이뤄졌다. 또한,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열강한 ‘벤처문화 심포지움’도 열렸다.



▲ 패널로 참여한 일신캐피탈 고정석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